

 인쇄하기

 취소

## "한국도 히든 챔피언의 나라 되려면 규제 더 철폐해야"

본지·세계경제연구원 콘퍼런스 참석, 독일 집권당 미하엘 폭스 부대표  
독일은 기술자 5~8명 모이면 창업  
정부선 사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하엘 폭스 독일 집권여당 부대표는 11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소·중견 기업을 육성 하려면 더욱 강력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는 유로존 경제가 점차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종택 기자]

"한국도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특히 세제와 세무행정을 간결·투명하게 해야 한다."

독일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당 연합의 부대표인 미하엘 폭스(64) 의원이 11일 방한했다. 중앙일보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국제 콘퍼런스에서 12일 특별 연설을 하기 위해서다. 중견기업을 직접 경영하기도 했던 폭스 부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제 브레인으로 집권당의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여장을 푼 직후 기자와 만난 폭스 부대표는 "기업인 때 무역을 위해 한국을 자주 방문했었다"며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한국 사회와 경제가 전혀 동요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잘 안다"고 말했다.

-남북 긴장으로 개성공단까지 잠정 폐쇄됐다.

“나도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 하지만 결국 잘 수습될 것으로 본다. 국제연합(유엔)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허튼 행동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게 긍정적이다. 독일도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엄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언제나 해결되나.

“올해도 힘든 시간이다. 유로존 전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점차 희망이 엿보인다.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찾아가고 있다. 재정 개혁의 고통을 좀 더 견디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바닥을 찍는 시점은 올 하반기께가 될 것으로 본다.”

-독일이 남유럽 국가들을 돕는 데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독일이 유럽연합과 유로화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만약 유로화가 없었다면 지금 독일 경제는 옛 마르크화의 가치가 치솟아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게 뻔하다. 독일은 유로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오는 9월의 독일 총선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메르켈 총리가 재집권하나.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메르켈이 워낙 잘하고 있고 이렇다 할 경쟁자도 없다. 방금 문자가 왔는데,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메르켈이 재집권하면 유럽에서의 독일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다. 메르켈은 박근혜 대통령과도 절친하다. 한국과 관계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독일은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중견기업들의 나라로 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쑥쑥 크는 비결은 뭔가.

“역사적 배경이 있다. 독일에는 5~8명의 기술자들이 모이면 기업을 만드는 소기업 문화가 뿌리 깊다. 이들 기업이 기술력을 무기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틈새시장의 톱 랭킹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도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중소·중견 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는데.

“한국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기업인들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다. 이미 놀라운 수준의 국제 경쟁력도 갖췄다. 한국 기업이 애플에 맞서 싸우리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를 북돋워준다니 고무적이다. 관료주의와 규제를 계속 철폐해 나가야 한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글=김광기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인쇄하기

 취소

## 독일 '히든 챔피언' 한국 일자리·양극화 해결에 롤모델

본지·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중견기업 육성 ...' 국제 콘퍼런스  
 범정부 차원서 체계적 정책 필요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챙겨야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육성 국제 콘퍼런스에서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왼쪽)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단 위는 왼쪽부터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하엘 폭스 독일 집권 기민·기사연합 원내 부대표. [안성식 기자]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던 독일은 2000년대 들어 노동과 복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또 기업의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세제와 금융 등 지원책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이 쑥쑥 커졌고, 청년실업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됐다.”

미하엘 폭스 독일 집권 기독민주·기독교사회당연합 원내 부대표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국제 콘퍼런스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중앙일보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콘퍼런스에는 3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폭스 부대표는 “한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관료주의와 규제를 과연 털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독일 두 나라는 전후 폐허와 분단을 딛고 이룬 경제 기적에서 근면·성실한 국민성까지 공통점이 많다”며 “독일 히든 챔피언의 성공 사례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좋은 롤 모델”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독일이 했다면 한국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공일(중앙일보 고문)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중견·중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중소기업청의 담당 부서 역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공 이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실행 여부를 챙기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중소기업은 ‘보호’, 대기업은 ‘규제’라는 과거의 컨셉트에서 벗어나 성장지향적 기업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현재 1422개인 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자율적인 연구개발(R&D)을 독려하기 위해 현재 30% 수준인 자유 공모형 R&D 지원을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매출 2000억원이 넘으면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국내 중견기업은 116곳에 불과하다”며 “이런 기업을 300개로 늘리고 한 업체당 수출을 4억 달러로 키우면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앞서 11일 열린 환영 만찬에서 “창업부터 자금조달, 해외시장 진출까지 일관된 성장촉진 정책을 펴 선순환의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의 주제발표를 맡은 미하엘 보이보데 독일 만하임대 중소기업연구센터 소장은 독일 히든 챔피언의 성공 비결로 ▶기업가들의 뛰어난 리더십과 혁신 능력 ▶장기적 관점의 경영 ▶가족친화형 기업문화 ▶특화된 기술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등을 꼽았다. 보이보데 교수는 “독일에서는 명문대 졸업생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전혀 꺼리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가족처럼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인 대표로 참석한 강호갑(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신영그룹 회장은 “기업인들은 아직 ‘신발 속 돌맹이’ 때문에 힘들다”며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려면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독일 중견기업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를 실감했다”며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상재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히든 챔피언=세계 시장 3위 이내, 매출 40억 달러 이하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름이 덜 알려진 글로벌 중견기업을 가리킨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정 분야의 틈새시장을 공략해 세계 1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가족 경영, 고객 친밀성, 평생 기술교육 등이 특징이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인 헤르만 지문 지문쿠허&파트너스 회장이 1996년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인쇄하기

 취소

[인쇄하기](#) [취소](#)

## "산업·기업은행을 중견기업 담당 국책은행으로"

[중앙일보·세계경제연구원 '중견기업 육성' 콘퍼런스] 패널 토론서 쏟아진 제안



'중견기업 육성'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기업인과 경제전문가들이 12일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프리드리히 스토킵어 한독상공회의소 회장(한국트럼프대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신영그룹 회장),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사회), 미하엘 보이보데 독일 만하임대중소기업연구센터 소장,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안성식 기자]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도 열띤 진행됐다.

▶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의 중견·중소기업은 대부분 전속 계약을 맺고 특정 대기업에 납품하며 생존하고 있다. 이 같은 종속 관계 때문에 해외 진출, 타 기업 납품 등이 제약받는다. 이런 구시대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헤쳐나가야 한다. 중견기업들은 무조건 덩치를 키우기보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 강호갑(신영그룹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한국의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 신화를 써왔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신발 속 돌멩이'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노사 간, 계층 간 사회적 합의가 덜 돼 있다 보니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법과 제도·정책 개혁이 시급하다. 독일이 노동·사회·복지 개혁을 통해 독일병(病)을 치유했듯이 우리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프리드리히 스토킵어(한독상공회의소 회장) 한국트럼프 대표=정밀판금 가공회사인 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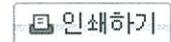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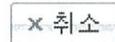
프는 25년 전 1500명이던 직원 수가 현재 1만여 명으로 늘었다. 비결은 자유경쟁과 열정이다. 과도한 통제나 규제·행정절차는 비용을 올릴 뿐이다. 독일과 한국은 자원은 거의 없는 대신 뛰어난 머리와 손, 부지런한 다리를 가졌다. 한국 기업에 조언하고 싶은 것은 이해 관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자세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고객·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한다.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금융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재 중소기업 금융은 정부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해 중견기업이 되면 그런 보증 지원이 끊기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더 크기를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다. 국책은행들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민영화하지 말고 중소·중견기업들과 중점 거래하는 국책은행으로 남겨야 한다. 중견기업들이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도 서둘러야 한다.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정부는 2011년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지난해 5월 지원 조직을 만들었다. 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중견기업 정책의 초점은 성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연구개발과 인재훈련, 해외 진출 등에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성장 근육'을 키우지 못한다.

정리=이상재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인쇄하기  취소

## "독일 기업 99.5%가 중소기업 ... 이들이 법인세 55% 내"

보이보데 독일 만하임대 교수 '히든 챔피언' 주제 발표  
"글로벌 틈새시장 독자영역 확보 ... 대기업보다 국가재정 기여도 커"

중앙일보와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KB금융그룹, 독일 아데나워재단이 후원하는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국제 콘퍼런스가 지난 11~12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렸다.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세계적 경쟁력의 중견기업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안정적 복지라는 경제의 선순환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 새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의지와 맞물려 이틀간 300여 명의 국내외 기업인,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독일 경제에서 미텔슈탄트(mittelstand·중소기업)는 전체 기업의 99.5%, 일자리의 71%를 차지한다. 또 법인세의 55%를 내 대기업보다 국가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한마디로 고용과 기술·세금 등으로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기업가들의 열정과 정부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결과다. 바로 여기서 '히든 챔피언'들이 배출된다."

미하엘 보이보데 독일 만하임대 중소기업연구센터 소장은 '히든 챔피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의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이같이 설명했다. 보이보데 교수는 '히든 챔피언' 개념을 처음 제시한 헤르만 지문 지문쿠허&파트너스 대표와 더불어 중소기업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은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점에선 독일과 비슷하다. 하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10% 이하다.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보이보데 교수는 "독일에선 정부가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둔다"며 "정부 보증이나 보조금 같은 정부의 과잉 지원은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효율을 떨어뜨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보데 교수는 "글로벌 틈새시장을 찾아내 주력 분야에 전력하고 가족주의 문화에 입각해 장기적 관점으로 경영하는 것이 독일 히든 챔피언의 특징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소장비 전문업체인 카처, 반도체용 접착제 업체인 델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1935년 창업한 카처는 고압 세척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의 매출은 80년 1억 유로 수준에서 2011년 19억 유로(약 2조8000억원)로, 고용은 같은 기간 1400여 명에서 8700명으로 늘었다. 델로는 신용카드의 IC칩이나 반도체 등 접착제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70%대를 자랑한다. 보이보데 교수는 "이들은 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쌓으면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차입 경영을 최소화해 글로벌 위기 때도 흔들림 없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보이보데 교수의 조언이다. 독일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상재 기자

 인쇄하기

 취소

## "R&D·해외진출 속도 내게 지원할 것"

중앙일보·세계경제연구원 '중견기업 육성' 콘퍼런스 - 윤상직 산업부장관 기조연설



윤상직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한국의 중견기업은 1422개로 전체 기업 중 0.04%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중견기업을 4000개로 늘려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5년간 중견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5.2%로 대기업(4.3%)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중견기업들이 커가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중견기업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기술 우위 없이 가격과 납기만으로는 성장의 턱을 넘기 어렵다”며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등에서 속도를 더 내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인쇄하기  취소

## "바보같은 규제 없애 기업인들 자유 만끽하게 해야"

중앙일보·세계경제연구원 '중견기업 육성' 콘퍼런스  
폭스 독일 집권당 부대표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대담



글로벌 중견·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다. 문제는 '어떻게 키우느냐'다. 본지 고문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미하엘 폭스 독일 집권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당연합 원내 부대표가 독일의 성공 경험을 한국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짚어봤다. 이번 특별 대담은 중견기업 국제 콘퍼런스 하루 뒤인 13일 진행됐다.

▶ 사공일=한국에도 독일처럼 히든챔피언이 많았으면 한다. 독일이 그토록 많은 히든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는 비결을 꼽는다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 귀뜸해줬으면 한다.(독일에서 히든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3위권 이내, 매출 40억 달러 이하이면서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견기업을 말한다.)

▶ 미하엘 폭스=(꺄꺄 웃으며) 여러 가지가 작용한 결과다. 기업가 정신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우선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 환경이 자유로워야 이게 가능하다. 기업인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관공서 서류를 꾸미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공일=중견기업들이 기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규모로 봐서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렵다. 독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폭스=독일엔 유명 연구센터가 많이 있다. 창업자들이 편하게 이들 연구센터나 대학을 찾아가 문제를 털어놓고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다.

▶사공=한국엔 많은 대기업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취약하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 나서 중소기업들을 돕는다. 하지만 직접 보조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폭스=맞는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기업인들이 자유를 만끽하도록 해야 한다. 바보 같은 규제들을 근절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역을 나눠 칸막이를 치는 규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독일에서도 요즘 큰 논란이지만 '이런 건 중소기업만 해야 한다'는 식의 온실은 만들지 않으려 한다. 정부가 막아주면 중소기업들의 창의력이 고갈될 위험도 따르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쓸 때 더 강해지는 법이다. 물론 강자가 법을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사공=나도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젊은 창업자와 대학·싱크탱크 등이 서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아직 이 부분에 약하다. 독일에선 대기업도 젊은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가.

▶폭스=독일 대기업들이 청년 창업을 활발하게 돕고 있지는 않다. 대신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할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젊은이가 창업하려고 할 때 대학의 연구 성과나 시설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공=화제를 돌려보자. 독일은 오는 9월 총선을 치른다. 유럽뿐 아니라 세계가 주시하는 정치 이벤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재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유로존 위기 탈출전략 등이 바뀔 수도 있다. 독일 총선의 주요 쟁점이 궁금하다.

▶폭스=지금까지 독일이 해온 개혁 조치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일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어떻게 늘릴지도 관심이다. 금융 시스템도 계속 안정시켜야 한다. 국가부채가 새로 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도 핫이슈다. 메르켈의 재집권을 확신한다.

▶사공=요즘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다. 북한의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외국인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궁금하다.

▶폭스=서울에서 며칠 지냈는데 (전쟁)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모든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듯하다. 독일에 돌아가서도 한국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전하려고 한다.

▶사공=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같은 생각인 듯하다. 그런데 요즘 북한 내부에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옛 동독처럼 북한도 갑자기 무너질지 모른다는 느낌도 든다. 독일 경험에 비춰 한국이 갑작스러운 통일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 폭스=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동독 사람들은 아주 수동적이었다. 공산당과 정부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사람들을 시장 경제에 어떻게 적응시킬지 대비해 봐야 한다.

▶ 사공=이제 유럽 위기 상황을 살펴보자. 유럽은 언제쯤 좋아질까.

▶ 폭스=이미 좋아지고 있다. 유럽의 부채 문제는 미국의 재정 문제보다 덜 중요한 이슈가 됐다. 현재 유럽 위기는 해결 가능한 단계로 들어갔다. 남은 문제는 경쟁력 회복 여부다. 그게 안 되면 미래가 없다. 우리는 아시아와 경쟁하고 있지 않는가.

▶ 사공=맞는 말이다. 긴축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경제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다. 개혁 없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다.

(대화가 국가 경쟁력에 이르자 자연스럽게 독일에서 좌파로 통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재임 기간 1998~2005년)가 추진한 '어젠다 2010'이 화두가 됐다. 이는 독일의 경제개혁 프로젝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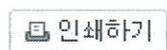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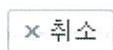
▶ 사공=독일 경제가 유로화 덕분에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독일의 구조개혁이다. 슈뢰더 총리의 '어젠다 2010'이 한국에 많은 점을 시사한다.

▶ 폭스=독일은 통일 이후 정말 어려웠다. '유럽의 환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슈뢰더 총리가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과도한 사회복지 혜택을 줄였고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바뀌었다. 세제를 개혁해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었다. 일정 기간 임금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그 결과 기업들의 경쟁력이 커졌다. 일자리가 늘었고 세수가 증가하면서 복지도 개선됐다.

정리=강남규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 미하엘 폭스= 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했다. 1976년엔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4년 뒤인 80년엔 임팩스일렉트로닉이란 자동차 부품 업체를 직접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다 2002년 지역구 의원으로 연방 의회에 진출했다. 집권 기독교민주당의 2인자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한다.

◆ 사공일=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관료가 아닌 학자 출신으로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대통령 경제수석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93년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 각종 콘퍼런스 개최와 저술 등을 통해 한국 경제와 기업의 발전 방향을 조언하고 있다.

기사 프린트 페이지

## 세계경제 위기 속 독일은 승승장구 , 비결은 '중견기업'

'중견기업 육성 독일에서 배운다' 컨퍼런스 열려

13.04.12 18:11 | 최종 업데이트 13.04.12 18:29 | 김동환(heaneye)



▲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컨퍼런스. 이날 컨퍼런스는 <중앙일보>와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했다.

© 김동환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자기 기업에 책임을 지는 경영자와 높은 수준의 기술 투자, 정부의 집중적 지원도 있어야 하지요. 반면 바보같은 조세 규제나 관료주의는 없애야 합니다."

연단에 서서 중소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백발 노인의 얼굴에는 '해본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흘렀다. 독일 집권당인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당 연합의 원내 부대표이자 중소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미하엘 폭스 의원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육성 :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국의 '미텔슈탄트'(중견기업)의 특징과 성공 비결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꼽은 성공 중소기업의 조건은 혁신과 자유였다. 폭스 의원에 뒤이어 발표에 나선 독일 만하임대학 중소기업연구센터 미하엘 보이보데 소장은 이밖의 조건으로 높은 R&D 투자와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산학협력 등을 강조했다.

## 슈퍼 중견기업 '히든 챔피언'... 비결은 '혁신'과 '자유'

중소기업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다. 한국이 일자리를 늘리고 선진국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층이 두터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이는 독일 특유의 중견기업 미텔슈탄트와 전문기업인 '히든 챔피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장에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200여 명의 인파가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미텔슈탄트란 종업원 수 500명 이하의 중견기업들을 일컫는 독일 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체 중소기업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내 순부가가치의 51%를 생산한다. 사회보험이 되는 일자리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취업 견습생들의 85%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다. 독일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취업학교의 역할에 해내는 셈이다.

독일의 최근 3년간 성장률은 약 8%. 글로벌 불황 속에서 선진국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이다. 폭스 의원은 이런 성과의 상당한 비중을 미텔슈탄트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독일의 실업률이 6% 미만이고 독일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0%인 곳도 있다"며 "고용이 늘어나니 20년만에 모든 사회시스템에 흑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이런 '잘 나가는'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워냈을까. 폭스 의원은 기업 경영자가 가져야 할 조건과 정부 지원 형태를 함께 거론했다.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경영자가 적절한 형태의 정부 지원을 만나면 중소기업이 미텔슈탄트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필요하면 채용했다가 필요없으면 해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족처럼 한 번 채용하면 평생 고용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미텔슈탄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정부에서는 미텔슈탄트의 혁신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두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요. 또한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나 관료주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미텔슈탄트 중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은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린다. 이날 히든 챔피언에 대한 발표를 맡은 보이보데 소장은 이 기업군의 특징으로 고도의 R&D 투자와 높은 수출지향성을 꼽았다.

통상 미텔슈탄트가 매출의 3% 정도를 R&D에 투자하는 반면 히든 챔피언은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5% 이상을 쏟아부어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든 뒤 50% 이상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경영 안정성도 히든 챔피언의 강점 중 하나다. 보이보데 소

장은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30%에 육박하도록 증가하는 등 경쟁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보이보데 소장은 "히든 챔피언 역시 혁신에 상당한 강점을 보인다"며 "변화에 유연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인재들을 많이 받아들이며 유능한 학생들도 히든 챔피언 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윤상직 "한국형 '히든 챔피언' 만들어야"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내 학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한국에도 독일의 히든 챔피언 같은 중소기업의 등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중견기업 중 히든챔피언 수준의 수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은 약 100개. 윤 장관은 "국내 중견기업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0.04%로 극히 미미하다"며 "2017년까지 수출 1억 개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 이상을 육성해 창조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물리적으로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자생력을 가진 전문기업으로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라는 얘기다.

조 교수는 "대기업도 이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개발한 능력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망 중소기업을 육아매 다른 곳에는 낚음을 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국장은 "정부 내에 중견기업 담당 부서가 생긴 게 불과 12개월 전"이라며 "정부의 종합 계획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올 6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0년 이상 한 분야 파고드는 정신이 비결” 독일 중소기업연구센터 소장

2013.04.12 23:30

“대부분 기업가들은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려는 생각을 하지만 독일의 히든챔피언 경영자들은 기업을 오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유럽 재정위기에도 독일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위기 때 더 진가를 발하는 강한 중소·중견기업인 ‘히든챔피언’이 있어서다. 그렇다면 1500개에 달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독일 만하임대학 중소기업연구센터 소장인 미하엘 보이보데(Micheal Woywode) 교수는 12일 히든챔피언 경영자들의 특유의 기업가 정신을 그 비결로 꼽았다.

보이보데 교수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앙일보와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로 열린 ‘중견기업 육성: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콘퍼런스에서 “가족기업이 대부분인 독일 히든챔피언은 대개 50년 이상 한 분야만 파고들어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며 “차입 경영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경영과 제품 혁신을 추구해 경기에 덜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장비 전문기업 카처(Karcher)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는 단순한 슬로건 아래 카처는 고압 온수를 이용한 산업용 청소장비를 50년 이상 꾸준히 생산한 결과 1980년 1억 유로였던 매출이 2010년 17억 유로로 성장했다는 게 보이보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연구·개발(R&D)에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의 3%, 대기업은 5% 정도를 투자하는 반면 히든챔피언은 5% 이상을 투자한다”며 “카처 역시 연간 수백개의 특허를 등록할 정도로 R&D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세계 유명 건물이나 기념비 등을 무료로 청소해주는 등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이보데 교수와 함께 강사로 나선 독일 기민·기사 연합의 미하엘 폭스(Michael Fuchs) 부대표는 “한국에 있는 독일상공회의소는 독일 기업의 한국 진출 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한국 중견기업도 미래를 위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폭스 부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은 ‘혁신’이라고 강조하며 “독일의 경우 경제부 내에 혁신전담부서가 있으며 산학협력 등 혁신을 위해 3억~6억 유로를 지원한다”며 소개했다.

그는 또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 성장의 전제조건인 숙

련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채용이나 외국서 일하는 독일인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 인쇄하기 | ✕ 창닫기

Copyright by kukminilbo. Kukinews.

## ***Why South Koreans Aren't Worried About Nuclear War***

**By Donald Kirk**

**The Atlantic**

April 12, 2013

<http://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3/04/why-south-koreans-arent-worried-about-nuclear-war/274947/>



A South Korean soldier patrol as vehicles returning from North Korea's inter-Korean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rive at a checkpoint, in Paju, north of Seoul, on April 6, 2013. (Lee Jae Won/Reuters)

*A South Korean soldier patrol as vehicles returning from North Korea's inter-Korean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rive at a checkpoint, in Paju, north of Seoul, on April 6, 2013. (Lee Jae Won/Reuters)*

SEOUL -- South Koreans look a little puzzled when asked whether they'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daily barrage of threats that, if carried out, would be the worst conflagration of modern times. What worse can a regime, governed ostensibly by a 29-year-old heir to his father and grandfather's power, vow than a "thermonuclear war" that would annihilate millions? SaKong il, a former South Korean finance minister who runs an influential think tank here, just grinned when pressed on whether the rhetoric from the North was having any impact. He had something more

important to think about - a conference he's hosting, "Lessons from German Experiences."

The topic might seem relevant considering how often people compare Germany's success in reunifying their once divided country with Korea's total failure to come up with a formula for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akong's conference, though, was not about reunification but rather the example set by Germany's flourishing economy for South Korea's own robust system, dominated by a dozen top *chaebol*, or conglomerates, that account for most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It's not as though people here aren't aware of the verbiage emanating from Pyongyang. The Korean media pours out a constant flow of reports on whatever the North is saying and what the South is saying in response. A few weeks ago many people weren't paying much attention. K-Pop concerts, including sold-out appearances by Psy, and quiz shows on television were far more spellbinding. There's an otherworldly sense here as if the danger were theoretical, an abstraction.

Lately, though, there's a certain apprehension in the air. The coffee shops, nightclubs and restaurants, the crowded stores and soaring office towers of Seoul give an appearance of a thriving, hard-driving society, but headlines and news reports are taking their toll.

Correspondents from the top U.S. television networks - some of which have ignored South Korea for years - have descended on the capital. Shots of historical edifices and familiar avenues are staples of their coverage. Newspapers and news agencies have beefed up their bureaus. Graphics showing how far North Korea's long-range, mid-range and short-range missiles might carry nuclear warheads are popping up on news programs worldwide.

But unless North Korea were to fire off a missile for real, that is, aim a real warhead at a real target rather than loft a test shot into the water, the view among Koreans is there's nothing much to fear. The United Nations has been imposing sanctions ever since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The sanctions got tougher after the second nuclear test in May 2009 and tougher still after the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By now the UN has pretty well run out of stuff to sanction.

If the North does fire at a live target, depending on the success of the shot, South Korea and the U.S. would most likely counter-attack. That's why people say they're worried - if only "a little" - about a potential missile launch surrounding the 101<sup>st</sup> anniversary on Monday of the birth of "Great Leader" Kim Il-sung.

Kim Il Sung died in 1994 during another "crisis - this one also precipitated b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ill Clinton, president at the time, said that he seriously considered going to war with the North, but the crisis ended with the signing in Geneva in October 1994 of a deal for the North to shut down its reactor and cancel the program in exchange for construction of two nuclear energy reactors to power the country's dilapidated electrical grid.

The stakes by now would appear infinitely higher, since North Korea has not only conducted three nuclear tests but has restarted the five-megawatt reactor and said it will never give up its nukes, seen as a bulwark against attack by the U.S. and South Korea.

Nonetheless, South Koreans often hark back to that crisis of nearly two decades ago to show the North is no more anxious for war now than it was then. They point to any number of crises since then, including the breakdown of the Geneva agreement after the revelation in 2002 of the North's entirely separate uranium enrichment program, to show the North will go only so far -- and no further.

On the streets of Seoul, it's those memories that permeate the subconscious. South Koreans, living in a dream world of peace and prosperity, are deaf to noises that suggest the dream could turn into a nightmare.

In that spirit, a middle-aged businessman joked about the challenges of evacuating in case of Armageddon. "If they do what they'll say they'll do, nobody will be able to leave anyway," he said.